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 전주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아동권리 구제 유관기관과 MOU 체결

전주시가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아동권리 구제 유관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8일 시장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본부장 황호성),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완진), 전북해바라기센터(센터장 강명재),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센터장 강명재), 전주스미일센터(센터장 이병관) 등 아동관련 5개 기관과 아동권리 침해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전주시 등 6개 기관은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주시 아동의 보호권 확보 등 피해아동의 권리침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보장을 실현시키는 등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들을 학대와 방임, 차별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의 주제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침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범죄피해 아동 발생 시에는 의학·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소송 지원 등의 즉각적인 통합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도시로 나아가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8일 효자4동주민센터 회



전주시는 28일 전주시장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본부장 황호성),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완진), 전북해바라기센터(센터장 강명재),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센터장 강명재), 전주스미일센터(센터장 이병관) 등 아동관련 5개 기관과 아동권리 침해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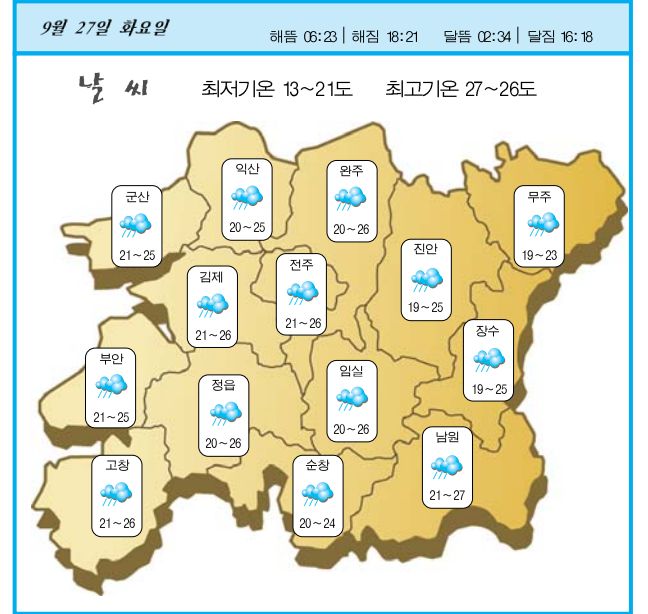
의실과 인후동 소재 전주시평생학습관 강당에서 통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세이브 더칠드런 호남지부 전문강사가 참석하여 아동권리 및 의견존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아동의 보호권 확립 등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부모, 아동업무 담당 공무원,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해바라기센터, 전주스미일센터는 피해아동 아동지원, 의료·상담·치료

및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아동의 권리침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아동관련 구제 유관기관들과의 활발한 협력 사업으로 전주시 아동의 권리 보호는 물론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법적조치 취할 것"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교부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전북과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10월로 예정된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금 미편성분만큼 감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별로는 전북교육청 813억원, 경기교육청 5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감액교부금 최종 확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서, 주무관에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감액교부금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만일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기준을 수정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의 기준을 삭제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서울출장소인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고민형 기자

## '문화가 있는 날' 아동하회별신굿 보존회 탈춤공연

### 전주시, 내일 오후 2시 시청 강당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하회별신굿 탈놀이'

전주시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형유산 전승자의 삶과 흥에 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누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주시는 내일 오후 2시 시청 강당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주제로 하회탈에 얽힌 전설과 그 가치에 대한 강좌와 함께 아동하회별신굿 보존회의 탈춤 공연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와 연계

해, 전주시민들의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하회별신굿 탈놀이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임형규 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유자와 손승락 전수교육조교가 직접 하회마을의 생생하고 화회탈의 탄생, 하회별신굿탈놀이 복원에 관한 이야기, 탈놀이의 대표작인 양반과 선비에 관한 풍자마당에 대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화회탈에 관한 얽혀있는 제

미있는 이야기를 비롯해 탈놀이의 연희과정 중 백정마당, 한미마당, 파계승마당을 탈놀이보존회에서 직접 시연해 참석한 시민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삶과 흥이 담긴 이야기와 시연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와 멋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형유산을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

록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서 12세기 중엽부터 상민(常民)들에 의해서 연희(演戲)되어온 탈놀이로 정월 초이튿날에서 보름 사이에 주민들이 병을 앓지 않고 편안하게 재가기를 기원하고 서낭신(神)을 위안하는 부락제를 마친 후 벌이는 가면극이다.

/김영재 기자

## 전북대, THE 세계대학평가 '국립대 2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영국 Times사가 발표한 2016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3위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해 이 평가에서도 국립대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지난 6월 QS 세계대학평가, Times사의 2016 아시아대학평가 등 최근 실시된 대부분의 대학평가에서 국립대 2위를 줄곧 고수하며 탄탄한 대학 위상을 자랑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평가는 세계 22개국 4천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역전 25%, 연구30%, 논문피인용 30%, 국제화 7.5%, 산학협력실적 7.5%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면밀

히 분석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교수들의 연구경쟁력과 산학협력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대는 교수당 연구비와 국제화 수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교수당 지식·이전 수입이 세계 중위권 수준의 역량을 보여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최근 수년에 각종 대학평가에서 부산대에 이어 국립대 2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며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 ~ 2015년도 3년 연속 (4년제 대학교)

#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

2013년 77.7% (다그룹 1위) / 2014년 73% (다그룹 2위) / 2015년 75% (최상위권)



색깔있는 인재로 키우는 대학! 호원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www.howon.ac.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입학상담 1588-9779

완전취업보장제도

대학 특성화 사업(CK)

평생교육 지원사업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 · 영어사관학교 · 해외교원학생 프로그램